내 아르바이트 자리는 어디에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방학에 들어간 가운데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취업정보안내판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쿵쾅 쿵쾅" 댄스·노래교실 소음공해

주민센터 인근 주민은 괴롭다

한 건물에 공부방까지 … 방음시설 안 갖춰 갈등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래·댄스 교실을 운영하면서 소음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같은 건물 내 공부방 어린이들과 주변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댄스·노래교실의 소음을 놓고 주민 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29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원 등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 노래교실·풍물교실·에어로빅 댄스·스포츠 교실·공부방 등 각종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자치센터는 ▲동구 13곳 ▲서구 15곳 ▲남구 16곳 ▲북구 26곳 ▲광산구 19곳 등 모두 89곳이며, 프로그램 수만도 452개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과도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노래·댄스 교실과 공부방을 한 건물에 배치·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다수 주민자치센터 내 취미교실의 경우 방음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음이 동일 건물에 위치한 공부방은 물론 인근 주택가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의 한 주민은 "노래·댄스 교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방음 시설부터 완벽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참가자들에겐 즐거운 음악이겠지만, 외부인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소음"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놓고 주민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 모 주민센터의 경우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11시30분까지 이 건물 3층에서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댄스 교실을 운영했으나, 같은 건물 내 공부방에서 소음피해를 호소하자 댄스 교실 운영시간을 공부방 휴일인 수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로 변경했다.

이에 댄스교실 수강생들은 "우리도 지역주민인데, 운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합과 소통'의 장인 주민자치센터가 되레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소음이 유발되는 노래·댄스강좌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공부방 운영시간과 엇갈리게 배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에 비해 장소가 비좁아 더러 같은 시간대에 운영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19시민수상구조대 본격 활동

7~8월 송산유원지·황룡강 등 8곳 배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29일 광주 송산유원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송산유원지와 황룡강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지 8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은 수상구조요원 4명과 NGO회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수변안전요원 200명을 포함해 모두 204명이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놀이 안전지도 및 구조, 상시 응급처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점심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 자주 발생한다"며 "수영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물놀이를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1마리 숨진채 발견

밀렵꾼 설치 올무 걸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밀렵꾼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구례군 토지면 왕시루봉 주변에서 반달가슴곰 암컷 1마리가 올무에 걸려 숨져 있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반달가슴곰은 지난 2001년 9월 지리산에 방사돼 모두 19마리로 늘어난 반달가슴곰 무리 중 1마리로 지난해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무를 설치한 최모(71)씨를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 가을에 멧돼지를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생활기록부 '특별활동란' 47년 만에 삭제

1963년 제2차 교육과정 개정 때 생긴 '특별활동란'이 47년 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 통합됨에 따라 지난 24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란이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동아리·진로·봉사·자율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학년, 주제·영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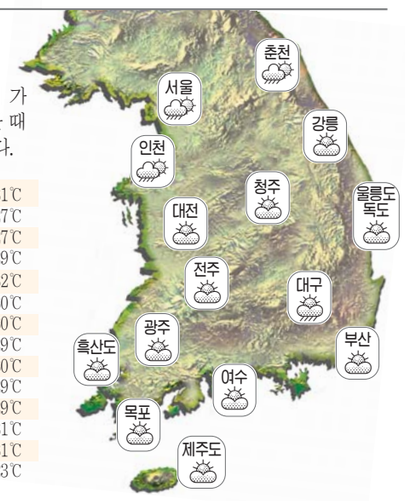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 해짐 19시 51분 — 달뜸 22시 09분 / 달짐 08시 39분

식중독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 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2/31℃
목 포	구름많음	21/27℃
여 수	구름많음	21/27℃
완 도	구름많음	21/29℃
구 례	구름많고한때비	22/32℃
해 남	구름많음	21/30℃
장 흥	구름많음	21/30℃
고 흥	구름많음	20/29℃
순 천	구름많음	22/30℃
영 광	구름많음	21/29℃
진 도	구름많음	20/29℃
전 주	구름많음	21/31℃
남 원	구름점차많아짐	21/31℃
흑산도	구름많음	18/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매우높음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04:35 16:29	09:52 21:43
여수	11:06 23:38	05:16 17: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 씨						
최저/최고	22/30	22/31	21/30	21/28	21/27	21/28

광주시 적십자회비 모금액 10년 만에 100% 초과 달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의 2010년 광주시 적십자회비 모금액이 2000년 이후 10년 만에 100%를 초과 달성했다.

광주전남지사는 6월 28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9억원인 광주는 9억1365만원(101.5%)을, 목표액이 17억5000만원인 전남은 19억585만원(108.9%)을 모금했다.

광주전남지사는 총 28억1950만원(106.4%)을 모금해 지난해 광주전남지사 모금액 26억8853만원(목표액 26억5000만원, 101.4%)보다 1억3070만원을 초과했다.

김필식 회장은 "광주시가 매년 전국에서 꼴찌였는데 100%달성된 점은 의미 있는 일로 적십자 회비모금에 참여해주신 시도민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확고한 안보의식 평화통일 초석된다